

현안과 과제

■ 2016년 하반기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
-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'경제 활성화' 유도

Executive Summary

□ 2016년 하반기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 -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'경제 활성화' 유도

■ 도입

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평균 4.9%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5년) 평균 3.1%로 하락했다.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.9%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.4%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.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.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0.97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5년) 0.66%p를 기록했다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 경제 성장 기여도는 1.66%p로 금융위기 이전(2.54%p) 대비 0.88%p 하락했다. 한편, 정부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의 성장 기여도는 0.58%p로 하락(금융위기 이전 0.72%p)했다. 특히,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.

■ 2016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

국내외 경제에 관한 기업들의 전망을 보면, 첫째,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'브렉시트(영국의 유로존 탈퇴) 등 유럽발 불안 우려' 및 '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'를 지적하고 있다. 2016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둘째, 하반기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59.3%의 기업이 응답했다.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1~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. 셋째,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'내수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'과 '금융시장 변동성 확대'로 응답했다.

기업 환경 전망에서는 첫째, 기업들은 추경 및 재정 보강이 하반기 국내 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'작다'는 응답이 56.7%를 차지했다. 둘째, 국내 경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2%대 초중반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80.3%를 차지했다. 셋째,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 넷째, 법인세율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.9%로 가장 많았다. 다섯째, 국내 기업이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'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'와 '철강, 조선 등 공급과잉업종

재편'이라고 응답했다. 여섯째, 하반기 최우선 경제정책은 '규제완화 진행상황 점검 지속 추진'이라고 37.3%의 기업이 응답했다.

2016년 하반기 경영 예측을 보면 첫째, 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50%를 상회했고 신규 고용 규모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%에 근접했다. 둘째, 2016년 하반기에 기업체의 자금사정이 '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이 64.4%를 기록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'상반기 수준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. 셋째, 2016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'상반기와 동일 수준 이거나 확대하겠다'고 응답한 기업이 87.5%에 달했다. 영업이익 목표는 '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증가하겠다'는 기업은 75%를 넘었다. 또한 2016년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'수익성 향상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3.3%를 차지했다. 넷째, 2016년 하반기 원/달러 환율을 '1,101~1,200원'으로 전망한 기업이 65.0%를 차지했다.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이 1,1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1.7%를 차지했다. 다섯째, 엔/달러 환율을 '100~110엔'으로 전망한 기업이 37.3%를 차지했다.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엔/달러 환율이 120엔 이하라고 응답한 기업이 77.7%를 차지했다.

2016년 하반기 투자 지수를 평가해 보면,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20.4로 6개월 전 117.9 대비 상승했다. 세부 지수별로 보면, 첫째,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추세지수는 2016년 하반기 92.0으로 6개월 전 104.1 대비 12.1p 하락했다. 둘째,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심리지수도 161.0으로 6개월 전 163.9 대비 2.9p 하락했다. 셋째,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는 150.0으로 6개월 전 139.2 대비 10.8p 상승했고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15.1로 6개월 전 113.0 대비 2.1p 상승했다. 넷째,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83.7로 6개월 전 69.4보다 14.3p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미만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이다.

■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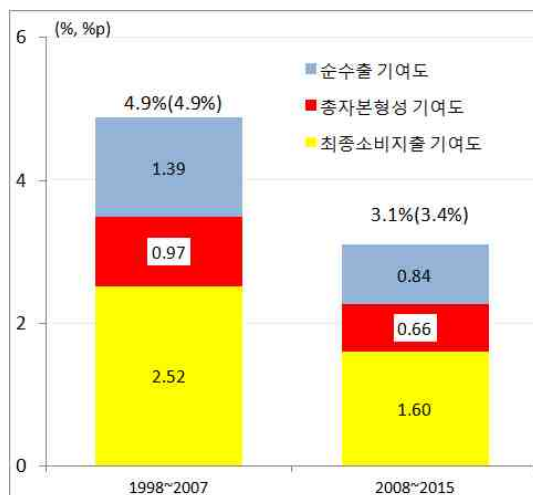
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완화와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,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. 둘째,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. 셋째, 세계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&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1. 투자 부진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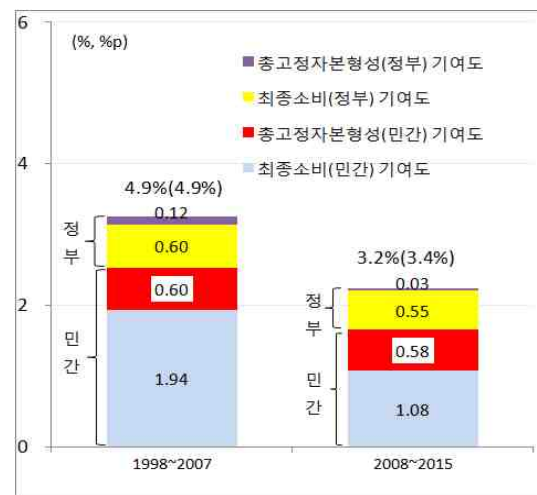
○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
-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.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크기가 작아짐
 -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(잠재성장률)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평균 4.9%(4.9%)에서 금융위기 이후 평균 3.1%(3.4%)로 하락함
 -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크기가 작아졌고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 크기는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평균 2.52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년~2015년) 1.60%p로 작아짐
 -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1998~2007년) 0.97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5년) 0.66%p를 기록
- 특히,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음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 경제 성장 기여도는 1.66%p로 금융위기 이전(2.54%p) 대비 0.88%p 하락
 - 정부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의 성장 기여도는 0.58%p로 하락(금융위기 이전 0.72%p)

< GDP 성장률 및 지출부문 기여도 추이 > < 투자와 소비의 공공/민간 경제 성장 기여도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및 재구성.
주 : ()안은 해당 기간 중 잠재성장률.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및 재구성.
주 : ()안은 해당 기간 중 잠재성장률.

2. 2016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1)

1) 국내외 경제 전망

- (국외 경제 전반) 국내 주요 기업들은 '브렉시트 등 유럽발 불안 우려' 및 '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'를 세계 경제 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으며,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
- 세계 경제 불안 요인 : '브렉시트 등 유럽발 불안 우려'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, '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 우려'와 '중국 경기 둔화'가 다음으로 큰 응답 비중을 나타냈음
 - '브렉시트(영국의 유로존 탈퇴) 등 유럽발 불안 우려'를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45.7%의 비중을 차지하여, 국내 기업들이 2016년 하반기 유럽발 경제 불안 확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, '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(스태그레이션)'도 전체 설문 응답의 25.0%를 차지하여, 많은 기업들이 2016년 하반기 세계 경제 부진세 지속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
 - '중국 경기 둔화'와 '미국 금리 정상화'도 각각 전체 응답 기업의 13.8%와 6.9%가 불안 요인으로 응답하여 중국발 경제 불안과 미국발 금융 불안 관련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2016년 하반기 세계 경제 : 국내 다수의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응답
 - 2016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는 '상반기 보다 둔화될 것이다'라는 응답은 71.7%로 가장 많았고, '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28.3%를 차지했음

<2016년 하반기 대외 불안 요인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주 : 복수 응답 기준.

<2016년 하반기 세계 경제전망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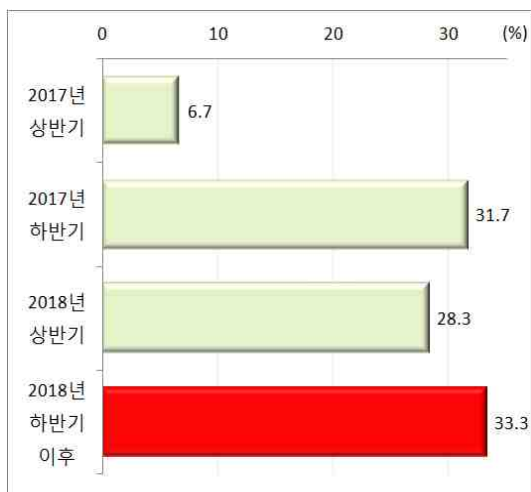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1) 본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6월 24일 ~ 7월 1일(6일간)였음. 매출액 기준 국내 12개 업종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, 61개 기업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됨.

○ (국내 경제 전반)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고 본격적 경기 회복 시점은 1~2년 이후로 응답. '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'을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지적

-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 :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는 '일시적으로 회복세 주춤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59.3%를 차지
 - '침체국면(더블딥) 진입'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0.0%이고 '회복세 점차 확대'라고 응답한 기업은 6.7%에 불과함
- 본격적 경기 회복 시점 :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점에 대해서 전체 응답 기업 중 33.3%의 기업이 '2018년 하반기 이후'라고 응답하였음
 - '2017년 상반기'로 응답한 기업은 6.7%, '2017년 하반기' 31.7%, '2018년 상반기'는 28.3%로 나타남
 -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1~2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
- 경영 위협 요인 : 대부분의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'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(33.3%)' 및 '금융시장 변동성 확대(25.4%)'를 지적했음
 - '투자 위축'과 '가계부채 증가'는 각각 16.7%와 14.0%를 차지했으며, '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' 4.4%, '부동산 경기 부진' 3.5%, '재정건전성 악화' 2.6%의 순으로 나타남

<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2016년 하반기 경영 위협 요인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주 : 복수 응답 기준.

2) 기업 환경 전망

○ (추경 및 재정보강 영향,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) 기업들은 추경 및 재정보강 영향이 작을 것이고 2016년 경제성장률은 2%대 초반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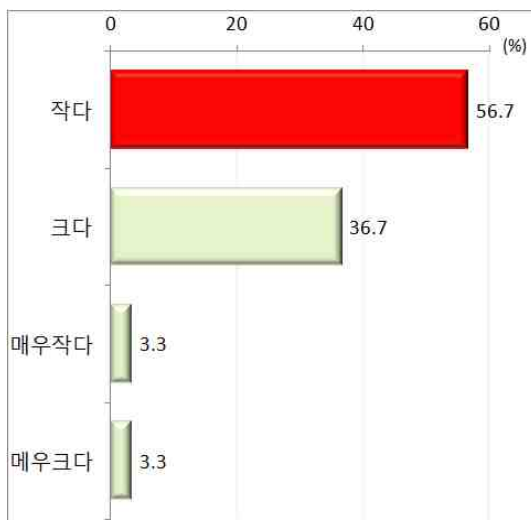
- 추경 및 재정보강 영향 : 정부의 추경 및 재정보강이 하반기 국내 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'작다'로 응답한 기업이 56.7%를 차지

- 추경 및 재정보강이 소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'작다(56.7%)' 및 '매우 작다(3.3%)'에 응답한 기업이 60.0%를 차지했음
- 반면, '매우 크다(3.3%)' 및 '크다(36.7%)'에 응답한 기업이 40.0%를 차지했음

-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: 국내 경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2%대 초중반 대로 예상하는 기업이 80.3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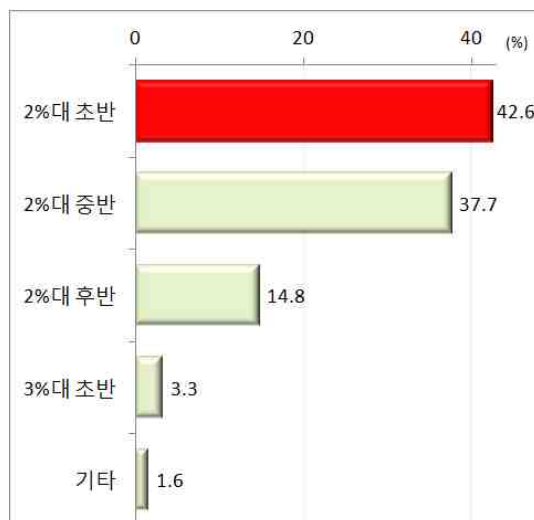
- 2016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'2%대 초반'일거라고 응답한 기업은 42.6%, '2%대 중반' 37.7%, '2%대 후반' 14.8%로 2%대 성장률을 예상한 기업은 95.1%를 기록
- 한편, '3%대 초반' 3.3%, '기타' 1.6%의 기업이 응답

<추경 및 재정보강 영향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2016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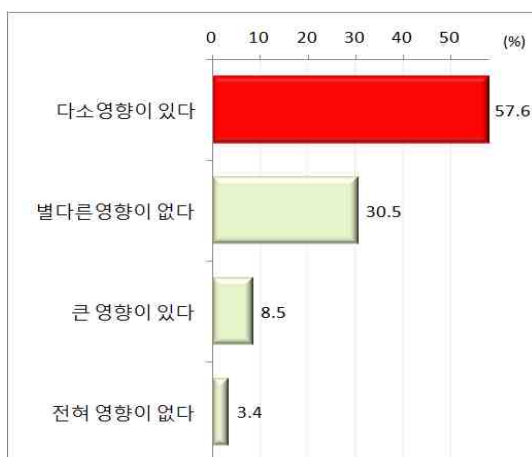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김영란법²⁾ 영향, 적정 법인세율) 기업들은 내수경기에 '다소 영향이 있다'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법인세율은 '현행 유지'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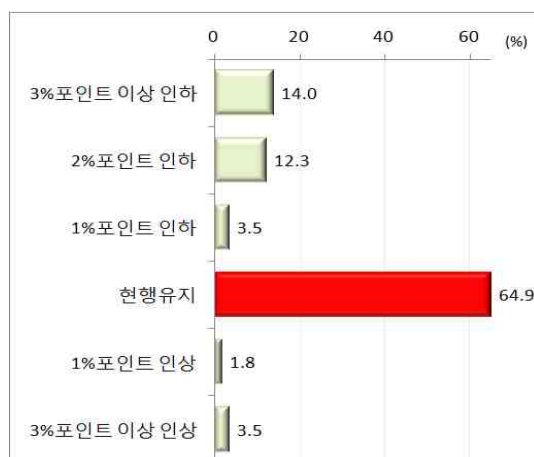
- 내수경기에 대한 영향 : 김영란법의 시행이 내수경기에 '다소 영향이 있다'는 의견이 57.6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
 - '전혀 영향이 없다'와 '별다른 영향이 없다'라는 응답이 각각 3.4%와 30.5%를 차지함
 - 한편, '큰 영향이 있다'라는 의견은 8.5%를 차지함
 - 접대비와 선물비용의 감소 정도 : '0~10% 감소'한다는 의견이 31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
 - 합리적인 상한선 : '현행 음식 3만원, 선물 5만원'에서 '5만원 이상 인상'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
- 적정 법인세율 조정 폭 :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'현행 유지'해야 한다는 의견이 64.9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
 -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%에서 25%로 인상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'3%포인트 이상 인하' 14.0%, '2%포인트 인하' 12.3%, '1%포인트 인하' 3.5%를 기록.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29.8%를 차지함
 - 한편, '1%포인트 인상' 1.8%, '3%포인트 이상 인상' 3.5%를 차지함

<김영란법의 내수경기에 대한 영향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적정 법인세율 조정 폭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2) 김영란 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9월말 시행 예정임. 식대·경조사비의 상한액은 식사 기준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제한했음.

○ (경영변수 우려 요인,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) 기업들은 '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'를 가장 우려하고 '규제완화 진행상황 점검 및 지속 추진'이 하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- 경영변수 중 우려 상황 : 국내 기업이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'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'와 '철강, 조선 등 공급과잉업종 재편'이라고 응답함
 -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'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' 33.0%, '철강, 조선 등 공급과잉업종 재편' 33.0%, '중국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및 비관세장벽' 15.0%, '중국 등 후발기업의 빠른 성장' 11.0%, 'AI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' 4.0%, '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' 4.0%로 응답함
- 하반기 경제정책 순위 : 국내 기업은 하반기 최우선 경제정책은 '규제완화 진행상황 점검 및 지속 추진'으로 응답함
 - '법인세 조정 등 기업친화적 세제개편' 16.9%, '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' 15.3%, '구조조정 마무리' 13.6%, '4차산업혁명 등을 감안한 신산업정책 수립' 13.6%, '노동개혁 추진' 3.4%순으로 응답함
- 브렉시트 영향 : 브렉시트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'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간접 영향'이 가장 클 것으로 응답함
 - '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간접 영향' 49.2%, '중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, 이익 감소' 23.7%, '환율 폭등에 따른 피해' 8.5%순으로 응답함
 - 한편, '별다른 영향 없음'으로 16.9%의 기업이 응답함

<경영변수 중 우려 상황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순위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3) 2016년 하반기 경영 예측

○ (2016년 매출 및 고용 전망) 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50%를 상회했고, 신규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67.9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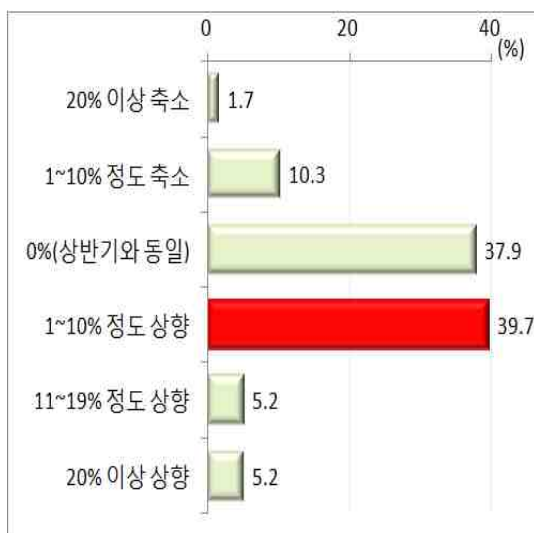
- 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 : 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는 '1~10% 정도 상향할 것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39.7%를 차지

- 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가 '상반기와 동일(0%)'할 거라는 응답은 37.9%, '1~10% 축소'하겠다는 응답은 10.3%, '20% 이상 축소'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.7%,
- '1~10%정도 상향'하겠다는 응답은 39.7%, '11~19%정도 상향' 5.2%, '20%이상 상향' 5.2%를 차지함

- 신규 고용 규모 : 2016년 하반기 신규 고용 목표는 상반기 대비 '1~5%'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56.6%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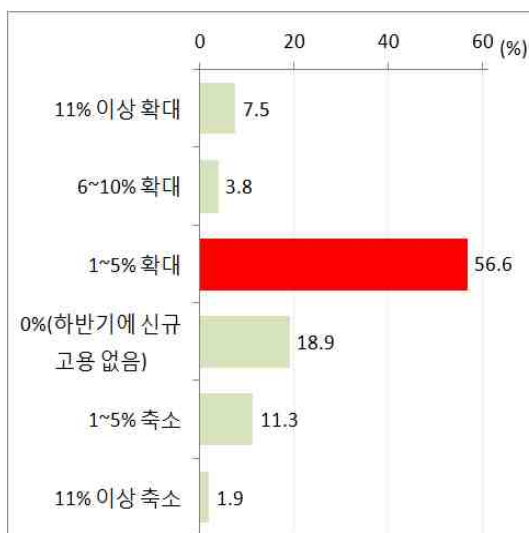
- '11% 이상 확대'로 응답한 기업 7.5%, '6~10% 확대'로 응답한 기업 3.8%, '신규고용 없음(0%)'으로 응답한 기업 18.9%, '1~5% 축소' 하겠다는 기업은 11.3%로 나타남
- 신규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67.9%를 차지

<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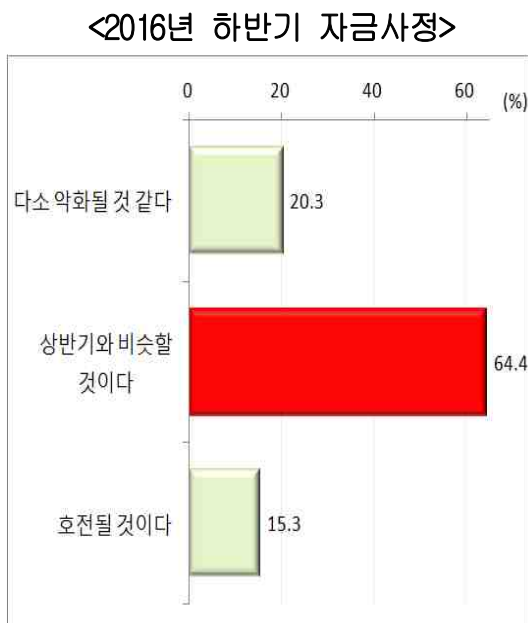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2016년 하반기 신규 고용 규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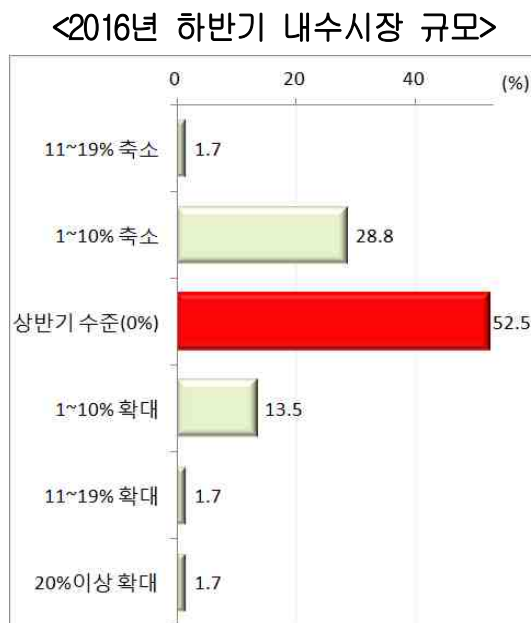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(2016년 하반기 자금 및 내수 시장) 2016년 하반기에 기업체의 자금 사정이 '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이 60% 이상을 기록했고, 내수시장 규모는 '상반기 수준'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- 2016년 하반기 자금사정 : 주요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'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64.4%로 가장 비중이 컸음
 - 2016년 하반기 자금 사정이 '다소 악화될 것이다'라고 보는 기업은 20.3%를 기록
 - 한편, '다소 호전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15.3%를 차지
- 2016년 하반기 내수시장 규모 : 각 업체가 속한 내수시장 규모에 대해서 '상반기 수준(0%)'일 것이라는 응답이 52.5%로 가장 많았음
 - 반면 '1~10% 축소'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8.8%, '11~19% 축소'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.7%를 차지
 - '1%~10% 확대' 및 '11~19% 확대'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3.5%, 1.7%를 차지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2016년 하반기 투자 및 영업이익 목표) 주요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(0%)이거나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87.5%에 달하고, 영업이익은 '상반기와 동일'수준이거나 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75%를 상회함

- 설비투자 : 2016년 하반기에 설비투자 규모는 '상반기와 동일(0%)'하다는 의견이 55.4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

· '1~10% 정도 축소'라는 응답은 8.9%, '11~19%정도 축소' 1.8%, '20%이상 축소' 1.8%, '1~10%정도 상향' 23.2%, '11~19%정도 상향' 1.8%, '20% 이상 상향' 7.1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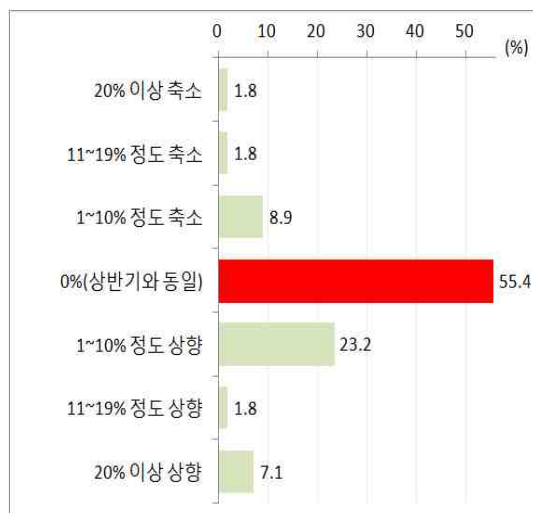
- 영업이익 : 2016년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 역시 '10% 이내 상향할 것이라고' 응답한 기업이 전체 43.1%로 가장 많았음

· '20%이상 축소'로 응답한 기업은 3.4%, '10%대 감소' 5.2%, '10% 이내 축소' 15.5%, '상반기와 동일(0%)' 17.2%, '10%대 상향' 6.9%, '20%이상 상향' 8.6%를 차지

- 2016년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 : '수익성 향상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3.3%로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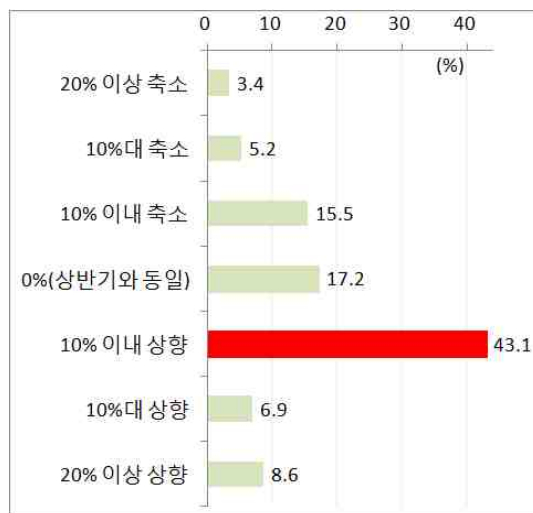
· '비상경영체제 유지'로 응답한 기업은 21.7%, '매출 증대' 20.0%, '투자 증가' 1.7%, 'M&A 등 신사업 진출' 1.7%, '기타' 1.7%의 순으로 나타남

<2016년 하반기 설비투자 규모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2016년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)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이 1,150원이라는 응답이, 엔/달러 환율은 120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
- 원/달러 환율 : 전체 응답 중 65.0%의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원/달러 환율을 '1,101~1,200원'으로 전망
 - 2016년 1월~6월 17일까지 원/달러 환율(일일 종가기준)은 평균 1,183.4원임

원/달러 환율	1,001~1,100원	1,101~1,200원	1,201~1,300원
비중(%)	6.7	65.0	28.3

- 엔/달러 환율 : 전체 응답 중 37.3%의 기업들은 엔/달러 환율은 '100엔~110엔 미만'을 전망
 - 2016년 1월~6월 17일까지 엔/달러 환율은 평균 112.4엔임

엔/달러 환율	90~100엔 미만	100~110엔 미만	110~120엔 미만	120~130엔 미만	130~140엔 미만
비중(%)	10.2	37.3	35.6	13.6	3.4

- 원/달러 손익분기점 환율 :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대해서 23.4%의 기업이 1,150원 수준으로 응답
 - 95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8.5%, 900원은 2.1%를 차지
 - 한편 1,050원 19.1%, 1,100원 14.9%, 1,200원 21.3%, 1,250원 2.1%를 차지
 -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,100원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61.7%를 차지

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	900원	950원	1,000원	1,050원	1,100원	1,150원	1,200원	1,250원
비중(%)	2.1	8.5	8.5	19.1	14.9	23.4	21.3	2.1

- 엔/달러 손익분기점 환율 :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대해서 31.1%의 기업이 120.0엔 수준으로 응답
 - 110엔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24.4%, 115엔은 22.2%를 차지
 - 한편 125엔으로 응답한 기업은 11.1%, 130엔 6.7%를 기록, 135엔 2.2%, 140엔 이상 2.2%를 차지
 -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20.0엔 이하로 응답한 기업이 77.7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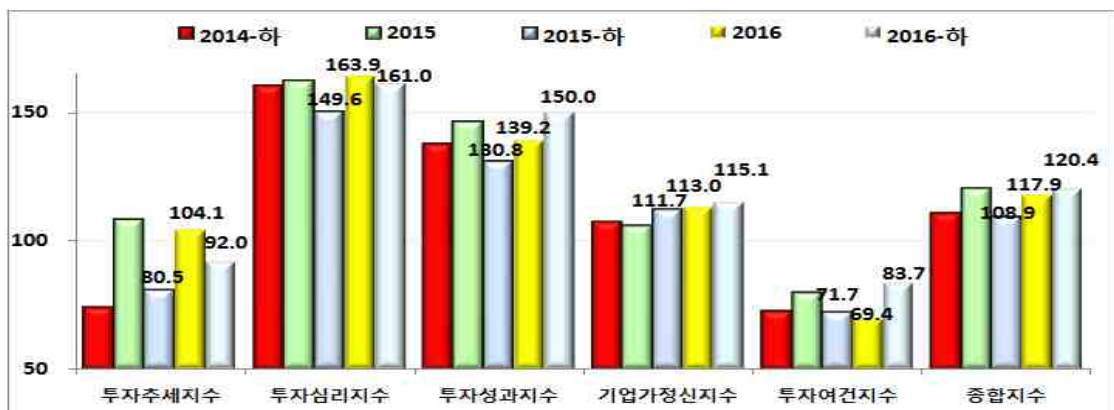
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	110엔	115엔	120엔	125엔	130엔	135엔	140엔 이상
비중(%)	24.4	22.2	31.1	11.1	6.7	2.2	2.2

3. 기업투자지수 평가

○ 2016년 하반기 투자 종합지수는 상반기 대비 상승하였고,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투자 여건 수준이 여전히 미흡

- 종합지수 상승 : 국내 100대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가 2016년 상반기 대비 상승
- 지수별 평가 : 2016년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투자 여건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기 힘든 상황
 - 투자 실적 하락 : 상반기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다소 늘었으나, 하반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
 - 투자 심리 다소 위축 : 상반기 대비 지수가 하락했으나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욕이 여전히 강하고, 경기 부진에도 투자 지속에 대한 의지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 - 투자 대비 성과 양호 : 상반기 대비 성과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투자대비 성과는 좋았다는 기업이 많았고, 향후에도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음
 - 기업가정신 소폭 상승 :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으나, 리스크가 클 경우 투자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
 - 투자 여건 개선 : 2016년 상반기 대비 투자여건지수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(100) 미만임. 기업들은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, 향후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

< 기업투자지수 추이 >



주 1) 2014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6월 20~27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2) 2015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12월 18일~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3) 2015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5년 6월 18일~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4) 2016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5년 12월 17일~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 5) 2016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6년 6월 24일~7월 1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
4. 시사점

-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어,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인 투자 여건 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
 -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, 국내 경제 회복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 회복 등 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우려

첫째,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도모

- 기업들은 2018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,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이 '규제완화 진행상황 점검 및 지속 추진', '법인세 조정 등 기업친화적 세제개편'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
-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
-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,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
 -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한 경제순환 고리형성(투자 확대 → 기업 수익성 향상 → 고용 확대 → 국민경제 활성화)의 단초를 제공

둘째,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

-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 61.7%의 기업이 1,100원 수준 이상으로 응답
 - 원/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65.0%의 기업이 '1,101~1,200원'으로 전망
- 기업들이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미세 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 필요

셋째, 세계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&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

- 미국 등 세계 경기의 회복에 대응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,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
- 적극적인 R&D 투자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발굴, 육성해야 함

임희정 연구위원 (2072-6218, limhj9@hri.co.kr)
 홍유림 연구위원 (2072-6243, ylhong@hri.co.kr)